

‘테스형’ 향수 없었다.. 위즈덤, 첫 시즌부터 ‘먹살 캐리’



KIA타이거즈 패트릭 위즈덤이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즌 3차전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지난주 한화전 3일 연속 홈런포 지난해 수비 보강 등 이유로 영입 16년 만 KIA 출신 홈런왕 ‘기대’ “3연속 홈런으로 연패 끊어 기뻐”



이번 시즌 KIA타이거즈에 합류한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3년을 KIA와 함께한 소크라테스브리토의 존재감을 지우고 있다. KIA가 시즌 초반부터 3승 5패를 기록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를 띠는 가운데 위즈덤은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먹살을 잡고 승리로 이끌고 있다.

지난해 KIA는 소크라테스와 결별하고 위즈덤과 손을 잡는 모험을 택했다. KIA에는 지난 2022년부터 세 시즌 동안 409경기에서 487안타 63홈런 270타점 266득점 3할의 타율을 지닌 소크라테스라는 안전자산이 있었다.

하지만 KIA는 1루수를 보강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했다. 지난 시즌 팀 1루수 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가 0.85 수준으로 리그 8위 하위권이었던 때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메이저리그에서 1루수와 3루수를 맡았던 위즈덤이 눈에 들어왔고, ‘거포’의 면모는 금상첨화였다. 2018년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한 위즈덤은 최근 3년간 20개가 넘는 홈런 수를 기록

하기도 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외국인 타자들이 KBO리그에 와서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나 또 적응에 실패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위즈덤도 메이저리그에서는 무조건 속도 위주의 강속구를 주로 상대해야 했던 반면 KBO리그 투수들의 공은 큰 폭의 변화구를 상대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던 부분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지난 22일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된 개막 2연전에서 위즈덤은 5타수 무안타 3볼넷 2득점으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그렇지만 위즈덤의 적응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팀의 막내 박재현으로부터 타이밍을 읽으라는 조언을 들었고 공 치는 타이밍을 당기면서 감을 잡은 것이다.

위즈덤은 개막 나흘 만인 2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데뷔 첫 안타를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으로 만들었다.

이어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에서는 3경기 연속 홈런포를 생산했다. 28일 경기에서 7회초 상대 선발 코디 폰세의 153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대전 신구장의 개장 첫 홈런을 터뜨렸고, 29일 경기에서는 1회 첫 타석부터 솔로 홈런을 쳤다. 30일 경기에선 메이저리그에서 금의환향한 류현진을 상대로 비거리 125m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드는 홈런을 쏘아올렸다.

위즈덤의 시즌 성적표도 압도적이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타율 0.292에 4홈런 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304로 LG문보경과 함께 KBO리그에서 홈런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위즈덤의 진가는 파워 뿐 아니라 그의 ‘눈’에서도 나온다. 위즈덤의 출루율은 0.471로 타율 대비 2할이 높는데 이는 KBO의 ABS 스트라이크존을 완벽히 파악하고 볼넷을 잘 골라냈기 때문이다. 위즈덤의 이번 시즌 볼넷은 총 9개로 삼성 이재현과 KT 로하스와 함께 공동 1위다.

개막 초반 위즈덤의 기세가 이어지면 KIA에서 16년 만에 홈런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2009년 김상현의 36홈런 이후 KIA에서 홈런왕이 배출된 적은 없다.

김도영과 박찬호가 부상으로 빠진 뒤 팀의 부진에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위즈덤은 자신의 경기력으로 팀 분위기가 반전되길 바라고 있다.

위즈덤은 30일 경기 직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 경기 연속 홈런으로 팀의 연패를 끊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의 승리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아 다음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전남도청 우수 장민규, 생애 첫 태극마크

투로 태극권전능 대표 선발 8월 세계우수선수권 출전

전남도청 우수 장민규(사진)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1일 전남우수협회에 따르면 장민규는 지난달 31일 총복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끝난 ‘제37회 회장배전국우수선수대회 및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난도 연기를 펼치며 투로 태극권전능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장민규는 주종목인 태극권에서 9.70점을, 태극검에서 9.69점을 얻어 총 19.39점을 획득했다.

이로써 장민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세계우수선수대회에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장민규는 “꿈꿔온 태극 마크를 생애 처음으로 달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전남도청과 전남도체육회, 전라도우수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전남도와 대

한민국 우수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오랜 시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장민규 선수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남 체육인들이 더 높은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윤병용 전남우수협회장 역시 “보배 장민규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은 전남 우수의 자랑”이라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멋진 기량을 펼쳐 메달을 꼭 획득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동한 기자



국립목포대 검도부 선수단이 지난달 30일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제67회 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목포대 제공

국립목포대 검도, 춘계전국대학연맹전 단체전 3연패

이승헌 男 개인전 우승

국립목포대학교 검도부가 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 단체전 3연패의 쾌거를 달성했다.

목포대 검도부는 지난달 28~30일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7회 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21개 대학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목포대는 단체전 예선에서 초당대를 3-1로, 8강에서 유원대를 3-1로, 준결승에

서 경복대를 3-2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목포대는 결승에서 대전대를 상대로 3-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목포대 검도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이어 3년 연속 이 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통의 검도 명문대학임을 입증했다.

개인전에서도 우수 성과를 거뒀다. 이승헌(체육학과 4년)이 개인전 우승을, 이마루(체육학과 4년)가 개인전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문선욱 목포대 검도코치는 “지난 2025 전국검도대학동계리그 우승에 이어 춘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3연패를 이룬 선수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도부 지도교수인 박동철(8단 법사·체육학과) 교수는 “이번 3년 연속 우승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팀워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 검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서구스포츠클럽 안예솜·박준표, 광주 대표 선발

전국소년체전 바둑 종목

광주 서구스포츠클럽 안예솜(일곡중 2년)과 박준표(동신중 1년) 학생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바둑 종목 광주시 대표팀 선수로 나선다.

1일 광주 서구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안예솜과 박준표는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광주바둑협회 대국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여중부와 남중부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서구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안예솜과 박준표는 오배령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전국·지역대회에 출전해 입상 성적으로 내고 있어 오는 5월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광주대, KUSF 대학농구 U리그 ‘마수절이 승’

리그 개막 2패 뒤 첫 승

광주대학교가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대부 정규리그 개막 3경기 만에 2025 시즌 마수절이 승을 거두고 본격적인 순위 경쟁 준비를 마쳤다.

국선경 감독이 이끄는 광주대 농구부는 1일 광주대 체육관에서 열린 수원대와 예

선리그 3차전에서 65-61로 이겼다.

시즌 개막과 함께 부산대(46-74 패), 단국대(65-76 패)에 내리 패하며 고전하던 광주대는 이날 승리로 1승 2패를 기록, 5위로 올라섰다.

광주대 정재현이 40분 풀 타임을 소화하며 8득점 8리바운드 10어시스트에 2점 차로 간신히 앞선 경기종료 직전 수원대

의 마지막 공격에서 결정적 가로채기에 이은 쐐기 속공 득점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임교담은 13득점 8리바운드 3블록슛을 기록하며 골밑을 든든히 사수했고, 양유정과 안서연, 조우도 나란히 두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광주대는 4일 오후 2시 홈에서 펼쳐지는 광주여대와와의 리그 4차전에서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최동한 기자